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이봉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09

발의년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이봉수, 강희향, 김영미
신종갑, 이동주, 이필례
전승학, 한일용, 허정행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은 국민적 합의 없이 마포구 상암동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나.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로 세입자인 재단이 서울시의 심의와 허가 없이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마포구 40만 구민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뜻을 받들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결의하고자 함

3. 이송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련기관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국민적 합의 없이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단의 행위는 국민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는 서울시부지이며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은 세입자다. 세입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용도를 함부로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면 구미에 있는 생가에 세우면 될 것이다. 본인들의 땅에 세우겠다는데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

서울시 재산에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 신청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부지를 무상 임대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도서관 건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적반하장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하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결사항쟁의 의지로 마포구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며 독재자인 박정희의 역사를 되새기는 암울한 장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마포구의회는 뜻을 같이하는 정당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운동을 온 힘을 다해 펴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은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서울시는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속히 표명해달라.

하나. 마포구의회는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반대운동을 펴 나갈 것이다.

2017. 1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